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입당송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
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예제 34,11-12,15-17

화답송 시편 23(22),1-2ㄱ,2ㄴ-3.5.6(◎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
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
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
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
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
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1코린 15,20-26,28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
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마태 25,31-46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
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순교 사적지

경주 관아와 옥 터(성건 성당)



경북 경주시 북문로 55번길 24

관할

대구대교구 / 성건 성당 054-749-8900

경주 관아와 옥 터는 천주교 신자들이 사학 죄인으로
몰려 관장 앞에 끌려가 문초와 형벌을 받았던 곳이다.
최양업 신부의 편지에 따르면 1860년 경신박해 때에
도 10명의 신자들이 경주 관아와 옥에서 문초를 당했
다고 한다.

“10명이 경주 감옥에 갇혀 있는데 3명은 문초를 당
할 때 용감히 신앙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감옥에서 고
초와 굶주림과 병고로 고생하며 함구합니다. 그들 중
16세 된 소년이 있는데, 옥사장에게 간청하여 아버지와
같이 형장에 나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최양업 신
부의 열아홉 번째 서한).

2014년 124위 시복식을 기념하여 경주 읍성 감옥 터
자리에 비석을 세웠으며, 이는 현재 성건 성당 관할
안에 자리하고 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옆집’ 성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허영민 세례자 요한 신부
야당 맑은연못 주임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늘 그렇듯이 만족보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구나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세상 그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일상을 모두 정지시키거나 바꿔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고통과 죽음, 낙심 그리고 혼돈에 빠져버린 세상 안에서 지난 2월 신자와 함께 하는 미사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사태의 발생을 미처 대비하고 있지 못한 세상에 공포감과 함께 엄청난 혼란과 무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삶의 진로를 뒤엎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 난세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간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 지금의 일상이나마 지켜낸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살리는 몸짓을 선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옆집’ 성인의 선함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삶 중심에 ‘옆집’ 성인들의 선한 마음과 헌신, 생명 나눔의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는가 반성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섬김과 나눔, 사랑과 용서의 왕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세상에 사랑과 용서, 평화와 겸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도 이웃 사랑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굶주린 이, 헐벗

은 이, 감옥에 갇힌 이가 누구로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느님께 벌을 받은 죄인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 계시는 주님으로 보이는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겉모습만 본다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겉모습 너머로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다면 그 굶주린 이, 헐벗은 이, 감옥에 갇힌 이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겉데기와 겉모습이 아니라 이웃의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잘것없는 ‘나’와 ‘너’가 하나가 될 때, 사랑과 용서, 평화와 겸손이 충만한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살아가며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한 이름 없는 신앙인의 기도를 나눕니다.

‘주님,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내 맘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의정부교구 신앙 유산의 발견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교회사적 의미



1. ‘마재 마을’ 이후에 교구 내 두 번째 신앙공동체의 형성(1827년 이전)

교회 사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시작은 하느님의 종 원윤철 요한의 집안을 통해 확인된다. 그의 여동생인 원 루치아가 고아인 원귀임(마리아)을 1827년에 입교시켜 키웠다. 그러므로 원 루치아는 1827년 이전에 입교했고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27년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교구 내 최초의 공소 설립(1836년 이전)

경기도 고양 용머리는 1839년 기해박해 이전부터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공소였다. 1836년 1월에 입국한 모방 신부가 조선교회 교세에 대해 보고 받은 내용 중에 보면, 당시 신자는 고양 용머리 교우촌에 30~40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당시 용머리 교우촌에는 원 마리아 가족들과 김효임·김효주 가족들 외에도 교우들이 많이 있었다. 용머리 교우촌은 모방 신부의 사목 방문을 받아 공소로 설립되었다. 김효임·김효주의 집은 공소 역할을 했고, 그들의 오빠인 김 안토니오는 공소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하느님의 종 원윤철(요한)의 딸 원 마리아가 김 안토니오 집에서 모방 신부를 만났다고 증언한 것으로 살필 수 있다.

3. 초기 교회부터 지속되어온 신앙공동체

1839년 기해박해 때 김효임·김효주 가족들만 피해를 입고 그 밖의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신자들은 무사했다. 그러므로 기해·병오 박해 뒤에도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와

해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하느님의 종 원윤철(요한) 가족들이 기해박해 이후에도 용머리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1866년 병인박해를 만나 10월에 용머리에서 원윤철과 성연순이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8일 양화진에서 군무호수형으로 순교했다. 원윤철의 딸 원마리아의 증언과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병인박해 이후에도 신앙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머리 공동체는 1882년 종현 본당(현 명동 성당)이 설립된 뒤 종현 본당 소속이 되었고, 이어 1891년에 약현 본당이 설립되면서 약현 본당에 소속되었다. 또한 1909년 의정부교구의 첫 본당인 행주 본당이 설립되면서 행주 본당에 소속되었다. 행주 본당 소속 시기인 1909년~1937년에는 용머리 공소가 교세 통계표에 구체적으로 등장한다.(1910년~1911년, 1934년~1937년, 평균 21.7명의 신자) 중간에 용머리 신앙공동체에서 공소가 존재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지만,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937년까지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신앙공동체의 하나로 유지되면서 공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기해박해 이전부터 시작되어 개화기 이후까지 지속되어온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의정부교구의 유서 깊은 신앙의 유산으로서 중요한 신앙적·교회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톨릭성가 228 이 세상 떠난 형제, 가톨릭성가 462 이 세상 지나가고

“영광— 영광 있으라, 임마누엘의 땅에!”

1661년, 영국 성공회의 박해에 저항하여 스코틀랜드 교회의 독립을 이루어낸 새뮤얼 루터포드 목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백여 년이 흐르고... 때는 1854년, 스코틀랜드 북 에어셔의 이르빈 마을에서 교회음악감독이며 성가작사가이던 안 로스 커진(Anne Ross Cousin)은 루터포드 목사의 “임마누엘의 땅”을 주제로 무려 열아홉 개의 구절을 가진 성가 “시간의 모래는 흘러내리고(The Sands Of Time Are Sinking)”를 출판합니다. 후에 성가책 “찬양의 예배(The Service of Praise)”에 실린 뒤, 이 성가는 영어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좌: 안 로스 커진, 우: 크레티앙 위흐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크레티앙 위흐안(Chrétien Urhan)은 180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독보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리던 비올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현대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조차 거절했던 작품을 대신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루드비히 반 베토벤과 젊은 프란츠 리스트와

도 같이 협연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가톨릭성가 228번과 462번의 멜로디는 바로 위흐안의 작품입니다



위령성월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회년이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선조들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시간과 공간, 나라와 인종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고, 믿음과 신앙을 위해 피를 흘린 그 모든 이들이 남겨준 아름다운 선물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윗사람의 손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인데요,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 내리사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랑의 근원인 하느님이십니다.

루터포드, 커진, 위흐안, 이 성가를 조선에 알린 선교사들, 그리고 삼사백년 간 이 성가를 불러왔던 모든 이들이 함께 느껴왔을 임마누엘 하느님의 사랑. 그 영광을 찬미하던 선조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성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든 이들의 죽음과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불러봅니다. 실은 며칠 전에 아버지의 생신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아버지께 사랑의 말을 담은 전화 한 통화부터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

※ 상단의 QR코드로 이 곡을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
수동 주임

무관심의 세계화

현대 인류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의 제약을 넘어서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세계화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세계화는 선형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2001년, 교황청 사회학술원 연설)

도구로서의 세계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평가대로 세계화 자체는 인류가 새롭게 마주한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도구 그 자체로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성격이 갈립니다. 같은 도구라도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쓰일 수 있고, 반대로 탐욕을 위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이 세계화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두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누가 울었습니까?

이탈리아의 최남단 람페두사섬은 북아프리카와 가깝습니다. ‘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아프리카 난민이 작은 보트에 몸을 실어 이곳을 목표로 항해하여 옵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2013년, 이곳을 무려 첫 번째 외부 순방지로 찾으신 교황님께서는 강론 중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형제자매들의 죽음에 대해 울었습니까? 누가 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울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려 일자리를 찾는 남자들을 위해 누가 울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우는 경험을 상실한 사회 안에 있습니다.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들의 우는 능력을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대의 세계화를 향하여

우리는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가장 풍요롭고, 서로가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내 풍요를 누리기에 너무나 바쁜 세상이기때문에, 이웃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경쟁과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는 풍조는 한 국가 안에서도 통용되지만, 국제 관계 역시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자가 누리고 패자가 고통받는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계화라는 도구가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방향으로 사용될 리 만무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세계화 과정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유례 없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그러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 빈곤과 불평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적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들 사이에 그리고 민족들 내부에 새로운 분열을 야기하는 일부 심각한 역기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 42항) ☹

“너의 목소리가 들려~♪”

2020년 12월 3일! 수능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더 지친 수험생을 위해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들과 후배들이
기도문·응원메세지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온 너희들이 정말 대견하고 참 뿌듯하단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묵묵히 앞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참 멋지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달려온 너희들이 이제 출발선에 설 순간이 왔구나. 겁이 나고 두려워질 땐 언제든 뒤를 한 번 돌아봐 주길 바라.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있을거야♡ 너무 고생 많았고 시험이 끝나면 환한 미소 지으면서 기쁘게 성당에 앉아 있는 너희를 열근 보고 싶구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애들이 화이팅 사랑해♡

평내 성당 김지원 목사



세상의 모든 지혜이시며 한없이 자애로우신 주님께 그간 고생한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들이 수능을 포함해 매 순간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어느 곳이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소서. 수능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맺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아직 수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없이 어렵고 긴장되는 순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능의 결과 또한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달려온 여러분은 참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보다도 밝고 찬란히 빛날 거예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송내동 성당 김예은 율리안나



주님,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운 수험생활을 보냈을텐데 친구들이 준비한 만큼 후회없이 시험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세요. 또한 수능준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굵어 살피시어 이 친구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호원동 성당 김민서 크리스티나



고3때 수험생 안수를 받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고3을 응원하는 날이 올줄이야. 쉬은일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후련하기도. 어쩌면 같은 길을 또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생한 너희들이 꽃피울 상상을 하면서 기도할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자><

교하 성당 백승훈 사도요한

그리스도의 빛을 사랑한 생드니 수도원장 쉬제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지난 회까지 고딕 성당 탄생의 원인이 되었던 국가와 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신학과 건축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개할 한 사람을 더하면 고딕 성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어려서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인 그는 생드니 수도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고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 평생을 함께할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생드니의 수도원장이 되어, 자신의 수도원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쉬제(Suger, 1081~1151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단짝은 프랑스의 왕이 되어 카페 왕조의 왕권을 강화한 루이 6세(1081~1137년)입니다. 수도원장 쉬제는 교회와 왕실의 전통적인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루이 6세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대의 평가에 의하면, 그는 공정하고 성실했으며, 화합을 중요시했지만 우유부단하지 않았고, 활동적이지만 인내심이 있었으며,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세부적으로 관찰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헨리 1세(정복왕 윌리엄의 아들)와 프랑스의 루이 6세 사이의 노르망디 영토 분쟁에서 쉬제가 중재자 역할을 했을 때 헨리 1세는 그를 평화의 끈이라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쉬제는 루이 7세(루이 6세의 아들) 때 제2차 십자군 원정을 떠난 왕의 섭정을 하였는데, 왕의 동생이 일으킨 쿠데타를 진압하고 안정된 왕권과 든든한 국고를 예루살렘 성지에서 돌아온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쉬제는 또한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였는데, 당대 최고의 영성가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는 그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개혁 초기’ 당신에 대한 거룩한 수도자들의 열의가 비판으로 향하게 된 것은 당신의 잘못 탓이오.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고쳐야 했소. ... (개혁 후) 그러나 결국 당신은 당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만족시켰고, 심지어 우리가 당신을 칭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자기 그리고 동시에 귀의시킨 것을! 한 명의 죄인이 귀의해도 하늘에서 그토록 기뻐하거늘, 하물며 전체 회중의 귀의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소?’(에르빈 파노프스키, 『시각예술의 의미』, 임산역, 한길사, 181쪽 참조). 베르나르도의 수도 규칙과 절제의 삶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지나친 금욕주의는 반대한 그는 다섯 평의 작은 방에서 살았고 검소한 식사를 좋아한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의 순간에 베르나르도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보면 베르나르도의 영성을 누구보다 인정한 형제 수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쉬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와 거룩하고 눈에 잘 띄게 보관된 성인들의 유물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물들을 지하 납골당에서 꺼내어 성가대석 위쪽의 공간에 안치하고 자연에서 얻은 보석들로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성당에 빛이 들어오도록 성당을 높이고 창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집을

을 보고 기뻐할 때 거기에 장식된 다채로운 빛깔의 돌들이 자신의 외적 근심을 몰아낸다고 하면서, 성물들의 물질적 밝음과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 그를 밝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쉬제의 성당은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가시적 성사가 되었고, 세상은 그것을 ‘고딕’이라고 불렀습니다. ●



생드니 대성당의 쉬제
(스테인드글라스)



교구장 동 정

11월	22(주일)	14시	제주교구 제5대 교구장 문창우 주교 착좌미사
	24(화)	20시	사목방문 - 도래울 성당
	25(수)	15시	대건카리타스 3차 정기이사회
	27(금)	14시	사제평의회 - 교구청 회의실
	28(토)	18시	견진성사 - 평내 성당



교구 소식

7,8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11/25(수) 10시

장소 후곡 성당

5,6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11/26(목) 10시

장소 중산 성당



2020 의정부교구 온라인 대림특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함께 준비하려 대림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유튜브 '천주교의정부교구' 검색 또는 교구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일	전례력	주제(소주제)	섭외 강사
11/27(금)	대림 제1주일	가짜 뉴스에 희생되신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2)	강신모 신부 (구리 성당 주임)
12/4(금)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교회의 난민과의 공존 모색하기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었다. (요한 3,16)	심유환 신부 (예수회)
12/11(금)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동박박사들의 위로의 길	김정일 신부 (고양동 성당 주임)
12/18(금) Youtube 생방송	대림 제4주일	노래하며 기다리는 성탄	최인혁 신부, 까뮤

■ 하느님의 집 후원 현황(10월말 기준) - 신설 성전 부지 구입 기금

전월잔액			5,751,062,283원		
10월 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14,930,000원	79,206,521원	378,113,054원	5,100,000원	477,349,575원
비 고	※ 군종 김성현 신부 : 5,000,000원				
월말누적잔액			6,228,411,858원		



미사 · 피정 ▶▶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2/2(수) 9:30~16:30

장소: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강사: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안내

명사초청특강: 11/27(금) 13:30(문자접수)

성시간: 11/28(토) 13:30

청년피정: 12/5(토) 14시

문화강좌: 숲해설, 초공예, 서예반 수시모집

문의: 010-4149-1853, 02-6951-1101

carmelcenter.kr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피정: 12/12(토)~12/20(일)

송년피정: 12/27(일)~12/29(화)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해님이 피정

일시: 12/30(수) 16:30~2021년 1/1(금) 13:3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4만 원, (농협 301-0087-0776-

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교육 · 모집 ▶▶

커피바리스타교육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

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문의: 010-9040-8306

http://club.catholic.or.kr/barista

청학 성당 관리자 모집

자격: 65세 미만, 남성,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업무: 성당 제반시설(전기, 설비 등) 관리, 미

화, 방호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제

출서류 반환불가) /접수마감: 총원시까지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문의: 031-841-1676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

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석·박사통합-신학,가톨릭사회복지학

2차전형 원서접수:11/23(월)~12/3(목)

전형일: 12/19(토)

문의: 705-8668 http://gsot.sogang.ac.kr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설명회: 12/5(토) 14시

겨울진학예비학교: 2021년 1/9(토)~10(일)

대상/문의: 초6,중1 /054-338-0530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1월 개강, 각 6주 과정)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사랑 체험과

우리의 상처

매주(목) 14시~16시, 손우배 신부

사랑의 법, 영혼의 법-하느님의 사랑, 성사

매주(금) 14시~16시, 이훈 신부

바오로 서간 과정(제2바오로 서간)

매주(금) 14시~16시, 임숙희 박사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

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요금:만원

주소: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전화: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시모집

2021년 1/7(목)~11(월)

의과대학, 의료융합대학,

공과대학, 관광스포츠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사범대학

<2022학년도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의학과, 간호학과 모집

문의: 033-649-7000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야간진료(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우양의 집 겨울난방비모금 쌍감차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겨울난방비 모금)

쌍감차 1Box 35,000원 /상시 판매

전화주문: 031-943-2120, 010-7240-3328,

입금계좌: 농협 351-1144-2777-43

이희승(우양의집)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토틡 포교베네딕도 수녀회 서울수녀원	12/6(주일), 14시	서울 돈암동 본원 (www.benedict.or.kr)	010-8191-0377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예수고난회	12/5(토) 18시~12/6(주일) 11시	서울 돈암동 수도원	010-6804-4904



덕인 도현우 서예전

천주섭리 天主攝理 서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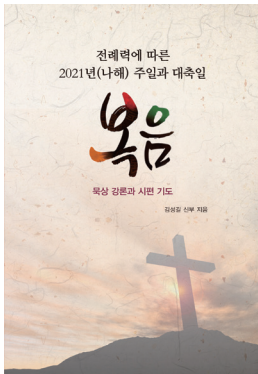
민족화해센터 평화순례자갤러리: 11/2(월)~11/6(일)

천주교 백석동 성당: 11/16(월)~11/29(일)

성바오로 논현서원: 12/1(화)~12/4(월)

도록 구입 문의 민족화해센터 031-941-2766

이 가을, 예년이었으면 가까운 사람들과 무리지어 단풍 놀이를 다녔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다녀야 하는 실상입니다. 파주에 위치한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열리는 서예전을 소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글자에 담긴 뜻을 묵상하며 수차례 써내려간 글씨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례력에 따른 2021년 주일과 대축일

복음

김성길 신부 지음 | 면수: 388면 | 18,000원

기쁜소식

문의 | 02-762-1194

묵상 강론과 시편 기도

의정부교구 김성길 신부가 2021년 주일과 대축일 복음을 바탕으로 강론집을 펴냈다.

강론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고백이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 글이고,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 환경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을 복음과 묵상기도, 시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읽고 말씀 나눔을 하는데 마중물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의 진솔한 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1

영성의 향기 (마지막 회)

익명의 바리사이

김동규 바오로 신부
대신학교 영성지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속주의’를 배격하며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속과 분리(聖俗二元論)되어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오히려 페스트를 신의 뜻이니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원주민 문화의 말살을 서슴지 않는 ‘세속적 신앙’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세속 안에서도 성화(聖化)로 이끄시는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간과한 결과 하느님의 뜻을 꼼짝하게 왜곡했던 것입니다.

“현대 세계로의 적응”(Aggiornamento)이란 모토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 이하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은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교회 헌장」 16항).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사목 헌장」 22항).

공의회는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톨릭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교회 헌장」 14항)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라너(1904~1984)의 표현대로, 세례를 받지 않았

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공의회의 구원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세례를 받고도 세속의 가치와 논리를 따르며 자신의 정당성과 권력을 옹호하는데 하느님을 이용하는 ‘세속적 신앙인’을 “익명의 바리사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진화하는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만나는 ‘진화의 수렴점’(테야르드 샤르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는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과 통교하며 세상을 향한 봉사로 나아가야 합니다(「선교 교령」 4항). 동시에 교회는 “익명의 바리사이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적으로 쇄신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그동안 꼼짝하게 왜곡될 수 있었는지, 하느님의 계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이용하여 왔는지를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찰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현대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쇄신을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교회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신학은 그 어느 학문보다도 발 빠르게 과거를 재검토하고 현대를 분석하며, “성령께 인도되고 있음을 믿는 그 신앙에 따라” 하느님이 섭리하시는 진정한 “시대적 징표”를 알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사목 헌장」 11항). 세상의 변화가 인류의 가치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게 하는 윤리와 영성의 비전을 미래세대에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